

# 특별한 하나를 위해 ‘짝’을 이룬 전시행사팀

협회 사업개발처 소속의 전시행사팀은 협회 내에서 인원 구성이 가장 적은 팀으로, 단 두 명의 팀원이 매년 열리는 ‘WATER KOREA’ 행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될 그들의 파트너십에 주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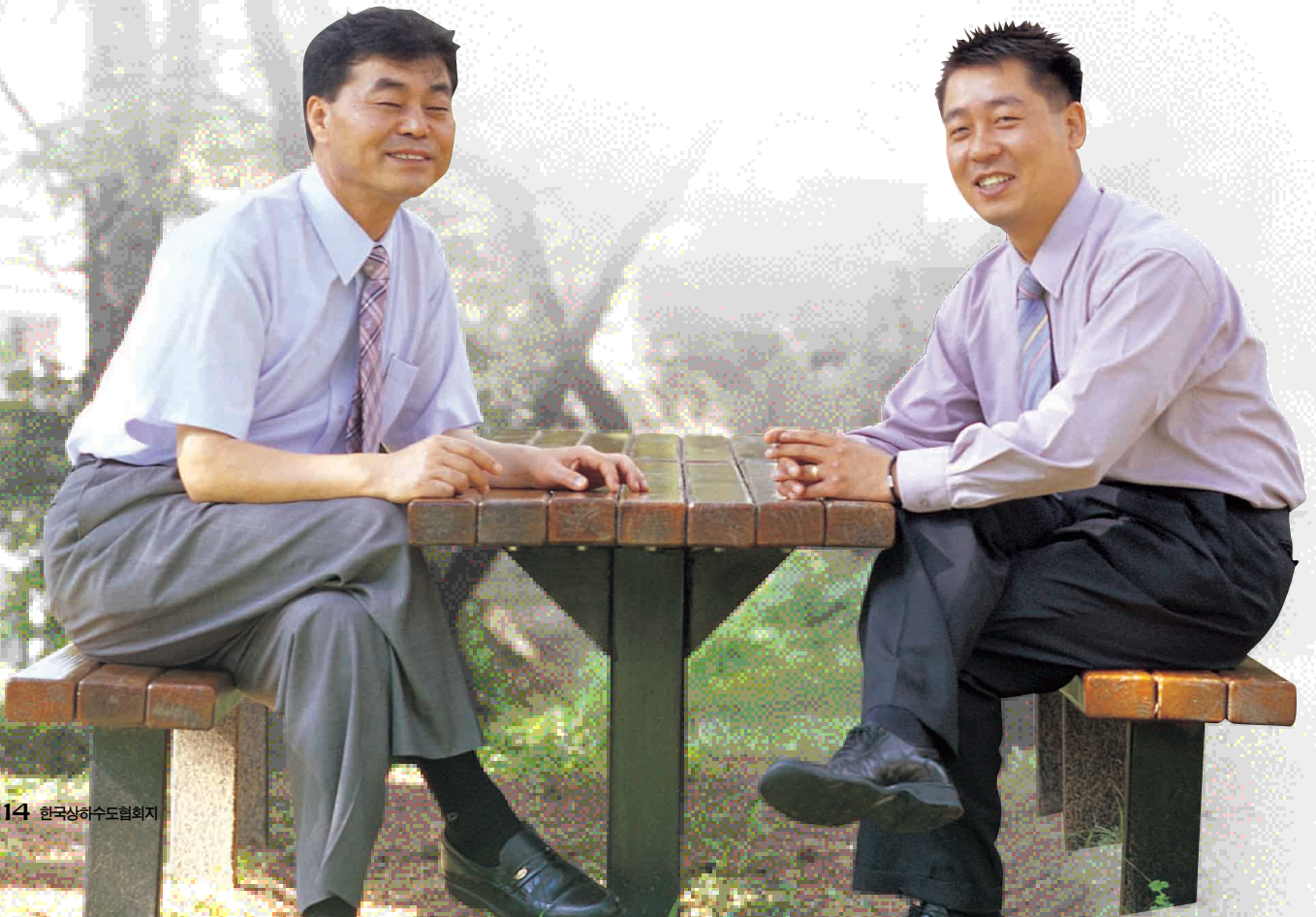
글 윤종환 · 사진 현명진

## 2004 WATER KOREA의 성공을 위해 뭉친 두 남자

3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상하수도전시회(WATER KOREA)가 2002년 대구광역시, 2003년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전광역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번 2004 WATER KOREA 행사는 대한민국 친환경기술의 새 지평을 열고 전국의 상하수도인

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바로 이 2004 WATER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전시행사팀 임철순 팀장과 정명수 과장이다. 4월부터 합류한 임철순 팀장은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파견을 나와 팀을 이끌고 있고, 정명수 과장은 2회 때부터 조직된 전시행사팀을 지키는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행사 개최지의 지



# A ssociation+



자체 공무원과 협회 실무자와의 만남이라는 특이한 인원구성은 WATER KOREA 행사를 보다 풍성하고 내실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욱 발전한 행사가 될 것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2004 WATER KOREA 행사는 지난 행사와 비교하여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욱 발전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정명수 과장은 말한다.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부스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초에 세운 420개 부스를 모두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행사 참관객의 70% 가량이 협회의 주요 회원이자 상하수도 관련 업체들의 주요 바이어인 지자체 공무원인 만큼 각 업체들이 주력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를 선보이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장이 실내와 야외로 나뉘는 점이다. 1, 2회 행사에서는 없었던 야외 전시장을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까닭은 협소한 실내 공간을 탈피하여 전시 효율성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실내 전시장의 장점과 야외 전시장의 장점이 하나가 되어 전시회의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술세미나, 기능경진대회, 체육행사, 상하수도인의 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는데, 지난해 열렸던 마라톤대회 대신 족구대회를 열고 시상 내역도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수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등 참가자와 참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전시행사팀에 팀장으로 오기 전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으로 있었던 임철순 팀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를 이야기한다.

“1회 행사에는 선수들을 데리고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했고, 2회 행사에는 기능경진대회의 심판으로 참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무를 담당하는 행사 팀장이 되고 보니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이번 행사가 대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년 행사 개최지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WATER KOREA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전시행사팀은 바라고 있었다.

## 환상의 복식조, 내 '짜' 을 소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새 '짜' 을 맞이한 정명수 과장은 이번 행사가 끝나면 임철순 팀장과 이별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짜' 을 맞이해야 한다. 매년 행사 개최지의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매년 행사 개최지가 바뀔 때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새로 오시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일하는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이 모두 적극적이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명수 과장은 파트너들이 지방에서 파견되어 오는 분들인 만큼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더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어찌면 업무 외적으로도 서로 챙겨주는 마음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단 둘 뿐이니 죽으나 사나 잘 맞춰야지’ 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 임철순 팀장 역시 파트너라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유대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철순 팀장은 협회와 지자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한 말을 남겼다.

“그동안 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켜만 보다가 직접 와서 일해 보니까 협회의 고충과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이곳에서의 업무가 중요되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관과 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협회의 회원이자 든든한 '짜' 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오는 11월 대전에서 이들의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함께 지켜보자. 